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125호 [투게 제24538호] 주제 103 (2014)년 5월 5일 (월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사회주의협동법에 모내기철이 왔다.

지금 온 나라 협동법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올해신년사와 전국 농업부문분조장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내주신 력사적인 서한에서 제시하신 전투적과업을 결사관철하기 위하여 떨쳐나선 농업근로자들의 투쟁열의로 세차게 끓어번지고있다.

오늘 우리 당은 전당, 전국, 전민이 총동원되어 모내기를 제철에 질적으로 끝냄으로써 올해 알곡고치를 기어이 절명할것을 요구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부침땀땀이 제한되어있는 우리 나라에서 농업생산을 늘이기 위한 근본열의는 당의 농업정책과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지어 정보당 수확고를 최대로 높이는 데 있습니다.》**

모내기철은 온 나라가 떨쳐나설것을 요구하고있다. 한해농사에서 가장 중요한 영농공정일뿐 아니라 많은 로력과 농기계, 영농물자를 집중하여 짧은 기간에 질적으로 와닿도록 해쳐야 하는 모내기는 농업근로자들의 힘만으로 보다 큰 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 지난 시기의 경험은 농촌들에 로력과 농기계, 전기, 관개용수 그리고 비료, 연유를 비롯한 영농물자를 충분히 보장해주는 것만큼 모내기성과가 오르고 쌀더미가 높아진다는 것을 보여주고있다.

모내기성과가 자 알곡생산성과이다. 우리에게 쌀이 많으면 무서울것도, 절명 못할 새도 없다. 우리 나라가 강국되고 잘사는것을 바라지 않는 원수들은 우리 인민들이 식량난을 겪게 하여 사회주의건설을 가로막아보고자 온갖 비열한것을 다하고있다. 현실은 농사를 잘 짓는것이 수를 따지는 경제실무적문제거나

## 사설

# 전당, 전국, 전민이 총동원되어 모내기를 제철에 질적으로 끝내자

라 사회주의를 지켜내느냐, 혁명의 명맥을 이어가느냐 하는 중대한 정치적문제이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온 나라가 떨쳐나 울며 모내기를 제철에 질적으로 하여 쌀풍년을 이룩하지만 하면 원수놈들이 아무리 갖은 발악을 해도 우리 식 사회주의는 끄떡없으며 강성국가건설을 앞당겨 나갈수 있다.

뜻깊은 올해에 농업전선에서 승리의 개가를 높이 울리자면 당면한 모내기전투에 전당적, 전국적, 전민적 힘을 총집중하여야 한다. 농업전선을 사회주의수호전의 전초선으로, 우리 혁명의 제1제대 제1선참호로 여기고 당면한 모내기전투를 성과적으로 결속하여 당이 제시한 올해 알곡고치점령을 위한 돌파구를 여는것은 이 땅에 살고있는 우리모두가 지닌 영예로운 임무이다.

올해의 이상기후현상은 모내기의 모든 공정에서 주체농법의 요구를 철저히 지킬것을 요구하고있다. 불철에 들어와 레너보다 기온이 높아져 영농공정이 10여일 앞당겨져 강수량이 적어져 서해지구에는 수십년만에 처음 보는 가뭄이 들고있다. 이상기후현상이 지속되고있는 현실은 모내기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요구를 철저히 지킬것을 요구하고있다. 지난 기간 사리원시 미곡, 안악군 오국현동농장에서 불리한 자연기후조건에서도 정보당 10여%의 논벼를 생산한 중요한 비결의 하나가 바로 주체농법의

요구에 맞게 모내기를 비롯한 모든 영농공정을 과학기술적으로 진행한 데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전국 농업부문분조장대회 참가자들에게 력사적인 서한 《사회주의농촌개혁의 기치를 높이 들고 농업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자》를 보내주시어 온 나라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에게 풍년가을을 펼쳐놓아 줄이는데 제기되는 문제들을 다 풀어주시었다. 어떻게 하나 제손으로 올해 농사를 잘 지어 이 땅우에 쌀포도 쏟아지고 만풍년의 향기가 차넘치게 하여 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를 앞당겨 나가려는것이 우리 당의 의도이다.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알곡생산에서 결정적환을 일으켜 식량문제를 기어이 해결하려는 우리 당의 구상을 받들어 모내기를 제철에 질적으로 끝내기 위한 투쟁에 한사발 같이 떨쳐나서야 한다.

모내기성과는 전적으로 일군들에게 달려있다. 불리한 자연기후조건은 우리 일군들로 하여금 올해 농사의 운명이 자기들의 어깨에 지워져있다는 자각을 가지고 정신력과 실천력을 최대로 발휘할것을 요구하고 있다. 농업성 일군들은 불철영농공정이

앞당겨진 조건에 맞게 시, 군들에서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모내기작업을 바로 정하고 실천하도록 필요한 대책을 철저히 세우며 아래의 실태를 정상적으로 료해강악하면서 정책적, 과학기술적지도를 앞세워야 한다.

도, 시, 군농업지도기관 일군들은 주체농법을 틀어쥐고 불철보장장사업에 힘을 집중하며 협동농장에서 모든 영농작업이 제철에 질적으로 진행되도록 작전과 지휘를 실속있게 하여야 한다. 특히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 일군들은 협동농장에서 모든 영농작업이 제철에 질적으로 진행되도록 작전과 지휘를 실속있게 하여야 한다. 특히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 일군들은 협동농장에서 모든 영농작업이 제철에 질적으로 진행되도록 작전과 지휘를 실속있게 하여야 한다.

모내기성과는 전적으로 일군들에게 달려있다. 불리한 자연기후조건은 우리 일군들로 하여금 올해 농사의 운명이 자기들의 어깨에 지워져있다는 자각을 가지고 정신력과 실천력을 최대로 발휘할것을 요구하고 있다. 농업성 일군들은 불철영농공정이 앞당겨진 조건에 맞게 시, 군들에서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모내기작업을 바로 정하고 실천하도록 필요한 대책을 철저히 세우며 아래의 실태를 정상적으로 료해강악하면서 정책적, 과학기술적지도를 앞세워야 한다.

모내기성과는 전적으로 일군들에게 달려있다. 불리한 자연기후조건은 우리 일군들로 하여금 올해 농사의 운명이 자기들의 어깨에 지워져있다는 자각을 가지고 정신력과 실천력을 최대로 발휘할것을 요구하고 있다. 농업성 일군들은 불철영농공정이 앞당겨진 조건에 맞게 시, 군들에서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모내기작업을 바로 정하고 실천하도록 필요한 대책을 철저히 세우며 아래의 실태를 정상적으로 료해강악하면서 정책적, 과학기술적지도를 앞세워야 한다.

아 한다. 전형단위를 창조하고 그것을 불세로 하여 다른 단위들에 일반화해나가는것은 우리 당의 전통적인 사업방법이다. 모든 협동농장들에서 전형작업반, 전형분조를 창조하고 다른 작업반과 분조들이 전형단위를 따라잡기 위한 경쟁열풍을 세차게 일으켜 모내기를 제철에 질적으로 끝내도록 하여야 한다.

당의 주인, 농사의 주인은 농업근로자들이다.

우리 당은 모든 농업근로자들이 김정일애국주의를 소중히 간직하고 실천활동에 철저히 구현하며 가렬한 투쟁의 불길속에서 전진시황생산을 보장한 1950년대 애국농민들처럼 살며 투쟁할것을 바라고있다. 우리의 농업근로자들은 이들의 영웅적 투쟁정신과 기풍을 본받아 올해 모내기전투에서 대혁신을 창조해나가야 한다. 《하나의 전진을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구호 밑에서 서로 돕고 이끌면서 집단적혁신을 일으키며 자기 분조, 작업반, 협동농장에서 자체의 힘으로 모내기를 해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여야 한다. 해마다 알곡생산계획을 수행하고있는 강서구역 청산협동농장을 비롯한 많은 협동농장들의 경험은 한이 짜고들고 매일 총화평가사업을 구제적으로 진행하며 언제나 농업근로자들과 함께 일하면서 실천적 모범을 보여야 한다.

모내기전투장마다에서 사회주의경쟁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게 하여

금지물 안고 기대정비와 관리를 책임적으로 하여 논밭과 씨베치기를 앞세워나가면서도 질적으로 해나 가야 한다. 모내시기계들은 자기들의 책임성과 기술기능수준에 따라 모내기의 속도와 질이 보장된다것을 명심하고 기대정비를 잘하여 벼모가 꺾이거나 뜨지 않게, 너무 깊지 않게 대적하여야 한다. 모관관리공들은 마지막모판의 벼모가 나갈 때까지 긴장하게 책임적으로 일하여 모내기성과를 담보해나가야 한다.

모내기철의 하루는 다른 때의 열흘맞잡이다. 농업부문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지금이야말로 비상한 각오와 지칠줄 모르는 열정으로 분발하고 또 분발하여야 할 때이라는것을 깊이 명심하고 모내기에서 나서는 주체농법의 요구를 한치의 드림도 없이 지켜야 한다.

전국, 전민이 모내기를 도와주어야 한다. 모내기는 시간을 다루고 풀이 많이 드는 영농공정인만큼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뿐 아니라 전체 인민이 떨쳐나설 때에만 좋은 성과를 거둘수 있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는 농사에 모든것을 부속시키는 원칙에서 모내기에 필요한 로력과 설비, 물자들을 무조건 제기에 보장해주어야 한다. 전력공업 부문에서는 심한 가뭄이 들고있는 조건에서 논농사지자 물농사지자 물보장이자 전기보장이자 관개용수를

가지고 양수설비들의 만가동보장에 요구되는 전력을 우선적으로 보내주어야 한다. 해당 부문에서는 생산적 양양을 일으켜 화확비료와 트랙터, 모내시기계들의 만가동보장에 필요한 부속품과 연유를 비롯한 영농물자를 계획대로 제기에 무조건 보장해주어야 한다.

농사일에서는 네일내일이 따로 없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농업전선을 사회주의수호전의 전초선으로 내세운 당의 의도를 명심하고 밝히는 사람이란 모내기를 도와야 한다는 관점에서 농촌지원사업에 주인답게 참가하여야 한다.

당조직의 역할을 높여 대중의 정신력을 최대로 분출시켜야 한다. 도, 시, 군당위원회들에서는 정치사업의 무대를 포전으로 옮기고 사상의 포문을 열고 집중포화, 연속포화, 명중포화를 벌여주어야 한다. 모내기전투장은 휴먼세나는 당일군, 늘 포전에서 사는 땅일군을 요구한다. 당일군들은 함양유적대배남을 메고 농촌에 내려가 새벽을 남먼저 포전에서 맞으며 화신선진, 화신선동을 참신하게 벌리면서 이신 작적의 모범을 보여주어야 한다. 농업부문 일군들의 사업을 적극 밀어줄수록 그들이 심심을 가지고 성수가 나서 올해의 모내기전투를 매기있게 지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상교양과 투쟁의 도수를 높여 당당단위에서 모내기속도와 질을 다같이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도록 하여야 한다.

모든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 지원자들은 김정일애국주의를 실천에 구현하기 위한 투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려 모내기전투를 성과적으로 결속함으로써 올해 혁명적투쟁의 돌파구를 열어놓아야 할것이다.

# 김정숙평양방직공장 로동자합숙 준공식 진행, 온 나라의 축복속에 합숙생들 입사

【평양 5월 4일발 조선중앙통신】 우리 당의 숭고한 인민사랑에 떠받들려 풍치아름다운 대동강가에 로동자합숙이 일떠서 사람들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주고있다. 새로 건설된 김정숙평양방직공장 로동자합숙은 공장동계급에게 보다 훌륭한 생활조건을 마련해주시기 위해 언제나 마음쓰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숭고한 사랑을 그대로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솟아난 행복의 보금자리이다.



연설자는 모두가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선군조선의 불패의 기상과 위력을 만천하에 떨치며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싸워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준공식은 《영광을 드리자 위대한 우리 당에》노래주악으로 끝났다. 새 로동자합숙이 준공된 이날 합숙생들은 만사람의 축복을 받으며 입사하였다. 위대한 아버지사랑에 떠받들려 로동자합숙, 로동자호텔의 주인이 된 합숙생들의 가슴이 숨은 한결로 격정으로 끓어올랐으며 온 공장구내는 명절처럼 흥성하였다.

합숙에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뜨거운 사랑과 은정속에 새합숙에 입사하는 합숙생들을 열렬히 축하한다!》라는 글방이 나붙어있으며 로동자들의 흥겨운 춤판이 펼쳐져 분위기를 더욱 돋구었다.

관계부문 일군들, 공장일군들과 종업원들 그리고 입사소식을 듣고 고향에서 온 합숙생들의 가족들이 입사하는 로동자들을 열렬히 축하해주며 기쁨을 함께 나누었다.

만사람의 부러움을 받으며 사랑의 궁전에 들어서는 합숙생들은 평범한 근로자들을 위해 우리 당이 베푸는 은덕이 너무 고마와 흐르는 눈물을 건질 수 없었다.

그들은 방에 정중히 모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의 초상화와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의 초상화를 우러러 경애하는 김정원수님의 하얀같은 은덕어래 군진같은 합숙에 새살림을 켜 사연을 마음속으로 이으며 삼가 인사하였다.

시작은 이렇듯 끝을 모르는 우리 원수님의 따스로운 손길에 황홀경을 펼친 합숙의 곳곳에서 로동자들의 격정이 세차게 분출되었다.

살림도구들이 일식으로 갖추어진 전 기간 방침방들과 너성로것들을 어서 빨리 멋있게 꾸민다는 뜻 활짝 문을 열어 놓은 절경한 미용실, 각종 도생들이 가득찬 도서실과 사점, 무릉도원을 방불케 하는 공원에서도 사회주의문명을 마음껏 누리게 된 로동자들의 기쁨이 한껏 흘러넘쳤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태양상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의 태양상이 준공식장에 모셔져있었다.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 혁명사상 만세!》,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 만세!》라고 쓴 구호판들이 준공식장에 세워져있었다. 또한 《위대한 김정은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높은 사업성과로 받드는 참된 실천가가 되자!》, 《방직설비를 현대화, 고속도회하여 질 좋은 천을 더 많이 생산하자!》라는 구호판들이 세워져있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오수용 동지와 안정수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김수길 평양시당위원회 책임비서, 차희림 평양시 인민위원회 위원장, 건설에 동원된 인민군부대 지휘성원들과 군인들, 김정숙평양방직공장 일군들과 로력혁신자, 종업원들이 준공식에 참가하였다.

준공식은 《김일성 장군의 노래》, 《김정일 장군의 노래》주악으로 시작되었다.

연설자는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온 나라에 조선속도창조의 기상이 나뉘는 격동적인 시기에 김정숙평양방직공장 로동자합숙 준공식을 진행하게 된다고 말하였다. 그는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새로 건설된 로동자합숙을 몸소 돌아보시고 5.1절 경축 로동자연회까지 성대히 마련해주시어 공장로동계급의 가슴마다에 무한한 영광과 행복이 차넘치는 속에 합숙준공식을 진행하게 된것은 김정숙평양방직공장 로동계급만이 아닌 온 나라 전체 로동계급의 크나큰 경사이라고 언급하였다. 연설자는 모든 생활조건이 최상의 수준에서 갖추어진 김정숙평양방직공장 로동자합숙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손길아래 솟아난 사랑의 궁전, 우리 당의 인민사랑의 고귀한 결정체이라고 강조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인민을 끝없이 존중하고 인민의 권익을 절대시하며 인민들을 참다운 어머니(심정으로 보살펴주어야 합니다.》**

연설자는 지난해 10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숭고한 인민애가 뜨겁게 깃들여있는 김정숙평양방직공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어머니장군님의 간곡한 당부대로 훌륭한 합숙을 지어주셨다고 하시면서 건설부지를 정해주시고 인민군대의 강력한 건설력량을 파견해주셨으며 공사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일일이 풀어주시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몸소 합숙건설의 건설자, 시공자가 되시어 로동당시대의 자랑찬 창조물로 하루빨리 일떠서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었으며 합숙에서 생활하게 될 로동자들을 위해 문화용품까지 보내주시었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김정숙평양방직공장을 중시하시며 공장로동계급의 생활을 친어머니심정으로 보살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자애로운 사랑이 있어 로동자합숙이 일떠서게 되었다. 이 속에서 로동계급의 세상이 우리 나라에서만 있을수 있는 성대한 로동자연회가 진행되게 되었다. 로동자합숙은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 옹위전의 기수인 인민군대의 혁명적근로정신과 일분새가 낳은 자랑찬 창조물이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숭고한 의도를 심장마다에 새겨안은 군인건설자들은 어머니당의 사랑이 공장로동계급에게 하루빨리 가닿게 하기 위해 착공의 첫삽을 박는 때로부터 공사에서 날아날마다 단숨에 의 기상을 높이 떨치었다. 군인건설자들은 추운 겨울에 공사를 진행하는 조건에서 덧짓을 짓고 낮과 밤이 따로없는 불꽃튀는 전투를 벌려 180여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먼지만 날리던 곳에 천지개벽의 희한한 현실을 펼쳐놓았다. 《조국보위도 사회주의건설도 우리가 앞장서야 한다!》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결사관철하여 세 인을 놀래우는 기적을 창조한 군인건설자들의 위훈은 강성국가건설사에 자랑스럽게 새겨질것이다. 로동자합숙은 우리 당의 주체적전진사상과 사회주의문명건설구상이 훌륭히 구현된 기념비적창조물이다. 연설자는 김정숙평양방직공장 전체 로동계급과 온 나라 전민간의 한결같은 마음과 인민의 꿈과 희망을 현실로 꽃피워**

주는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 최대의 영예와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리었다. 그는 오늘 우리앞에는 당의 강성국가건설구상을 높이 받들고 인민생활향상에서 결정적환을 일으키며 혁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야 할 전투적과업이 나서고있다. 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김정숙평양방직공장 전체 로동계급은 위대한 대원수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이 자기들의 몸에 뜨겁게 와닿고 언제나 배두산절세위인들의 품속에서 살며 일한다는것을 잊지 말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뜻을 받들고 높이 우러러모시며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사상과 명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가야 한다. 공장의 로동계급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직말씀을 심장깊이 새기고 전국의 앞장에서 기적과 혁신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키는 천생선계획을 넘쳐 수행하여야 한다. 김정숙평양방직공장은 로동자합숙의 관리운영과 합숙생들의 생활보장사업을 짜고들어 당의 사랑과 은정이 로동자들에게 뜨겁게 감동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정론

# 점어지는 시대

영광스러운 우리 시대에 누구나 느끼고 있는 송고한 감정이 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시대가 더 젊어지고 있으며 그속에서 우리모두가 젊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어디서나 들려온다.

조국보위초소에서 들려오고 과학지구에서도 들려온다. 기계공학자들에서 들려오고 공원과 유희장들에서도 들려온다. 젊은이도 늙은이도 내인들도 말한다. 대동강반을 비롯한 곳곳에서 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수가 몇 곱이나 늘어나고 점심때나 일요일에 공원마다에 새로 꾸러진 배구장들이 흥성있는것을 보아도 시대의 새로운 젊음을 느낄 수 있다.

젊어진다!  
사실상 이것은 인간의 생활에서 흔히 들을수 있는 말이기도 하다.

그러나 우리의 우리 시대를 표현함에 있어서, 우리자들의 삶의 진가를 표현함에 있어서 이처럼 적중한 말이 없을것이다.

존엄성은 인민으로서의 영예를 떨쳐온 김일성님께서 더욱더 젊어지는 시대를 맞이한것은 참으로 행복한 일이다.

사람마다 희망하는 젊음이 한 나라, 한 민족의것으로 될 때 그 의미는 크다. 인민대중이 다같이 느끼는 감정은 역사를 대표하기때문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우리의 위업은 정당하며 진리로서 뒤흔친 조선의 힘은 무궁무진합니다.》  
새파랗게 돌아나는 새 잔디로만 우리들의 땅을 시작짓는다.

젊음 고르롭게 다듬어 잔디를 심고 아침저녁으로 물을 주면서 애지중지 가꾸어 갈 때 그것이 우리에게 가져오는 새 생활에 대하여 더 말할 수 없다. 그러나 온 나라 곳곳에 퍼져나가는 새 잔디와 함께 우리들의 마음속에 희망의 새싹이 파릇파릇 돋아나고있음을 스스로 깨닫게 된다.

평양과 지방의 곳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잔디를 심는것을 위해서 모면서적들은 북조선사람들이 전례를 따르고있는것 같기도 보였었다. 가슴뛰는 몸의 시작이었다.

여기저기서 새로운 설레도가 그려지고 착공의 보성이 울리었으며 완공, 준공, 개장의 보도들이 연이어 터져나왔다. 보통의 판단으로 몇십년후에 이루어질 변혁들이 단숨에 일어났다.

만수대만덕에 높이 모서진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동상을 중심으로 혁명의 수도 평양의 면모는 얼마나 달라졌는가. 급수선대양구역에 태양의 성지로서의 성스럽고 아름다운 풍경을 펼쳐서 인민들을 기쁘게 해주었다. 조선인민군 무장장비관리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이 멋있게 꾸러져 우리의 근면에 대한 긍지를 가지게 하는 좋은 환경도 마련되었다.

그속에서 조국에 대한 표상이 보다 풍만해졌다.

김일성광장의 국기계양대로부터 대동강변의 충추는 분수와 환호한 축복의 발들은 말한것처럼 조선의 위대한 정치는 어느 한 부분이 아니라 모든 분야가 한꺼번에 달려져서, 서서히가 아니라 단숨에 달려져서 하는 정적이다. 미국의 압력이나 제재같은것이 마수를 떨칠새없이 나라가 급속히 발전해 오르게 하는 정적이다.

조선은 이르고나가는 경에 하는 김정은동지의 평도는 거대한 정치적가속도를 안고있다. 우리 원수님의 로숙하고 세련된 평도는 설계와 구상이 위대할뿐아니라 현실이 단호하고 판단속도가 빠르며 전체적력과 추진력이 있어서도 비상한 속력을 가지고있는 세계적인 기적들을 단숨에 창조한다. 우리 원수님의 정치는 지능해가 다르

고 올래가 다르며 어제와 다르게 오늘이 다른 놀라운 가속도를 내는것으로 하여 만사람을 경탄시킨다.

우리 원수님께서 일어나가는 정치적가속도는 어버이수령님께서와 위대한 장군님께서 채택해오신 주체의 제도와 곧바로 이어져있기에 최고의 속도상승을 가져온다.

혁명승리의 모든 성공담들이 담보되어있는 백두의 행군에서 한치의 탈선도 없이 나가시기에 그의 정치는 비상한 가속도를 안고있는것이다.

그이께서는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물려 주신 승리의 력사와 전통을 소중히 안고있고 김일성민족의 자랑으로 대대손손 전해질 조신속도를 일으키시며 나라를 이끄신다.

세계 어느 나라 정치가에게 이런 영웅의 력이 갖추어져있는가.

이것을 생각할 때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평도를 받는 조선인민으로 사는 긍지로 가슴부풀고 그의 평도를 따라 미래를 앞당겨가는 자부나 넘친다.

지구의 발전속도로 보아 우리 나라가 5년 후에 어떻게 될것인지, 10년후, 20년후에는 또 어떻게 될것인지를 가늠해볼수 있다.

조선에서 가까운 앞날에 이르될수 있는 성공적인 결과물들이 무엇인가?  
이 물음에 대하여 대답할것이 많다.

우리 조국은 가까운 앞날에 대단히 부유하고 문명한 나라로 될것이다. 정치적가속도를 받는 우리 조국은 거대한 잠재능력을 가지고 비약적으로 발전할것이다. 건축예술에서 단연 앞자리를 차지할것이며 국민소득에서 발전된 나라 수준에 도달할것이다. 핵보유국, 인공지구위성체와 몇몇국가이라는 이름과 함께 부유하고 문명한 나라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는것이 우리의 미래일것이다. 다른 나라 경제전문가들은 우리가 가지고있는 국방공업과 우주기술, CNC공작기계장비도만 놓고도 국가가 가진 거대한 힘을 계산하고있다. 사람들은 《한국》호들의 배고고있고 예고하는 조선의 새로운 힘을 느끼고있으며 《유럽어동맹원》, 《북경구강병원》과 같은 새 이름들이 나라의 발전에 주는 영향력을 충분히 짐작하고있다.

우리 나라에 위치한 자원으로 경제적 패권을 틀어쥘 구상을 가진것으로 의미심장한 일이지만 소프트웨어분야와 생명과학분야, 우주 및 항공분야의 인재들이 쏟아져나오며 최첨단 기술분야에서 이루어지게 한다. 사상에술적감화력이 대단한 모란봉악단의 출현으로 하여 사회적분위기는 또 얼마나 높이고있는가.

이 모든것을 체현하는 우리 마음 얼마나 후련한지, 우리의 눈은 얼마나 높아졌는가. 사람마다 안목은 얼마나 넓어졌으며 자기의 목표를 세우고 실현해나가는 길에서 얼마나 훌륭한 경험들이 축적되고있는가.

시대의 젊음은 나라의 발전속도와 발전의 폭에 그대로 비쳐진다.

김정은시대는 몇십년의 시간을 몇년으로 단축해놓는 비상한 기적을 이룩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정치는 어느 한 부분이 아니라 모든 분야가 한꺼번에 달려져서, 서서히가 아니라 단숨에 달려져서 하는 정적이다. 미국의 압력이나 제재같은것이 마수를 떨칠새없이 나라가 급속히 발전해 오르게 하는 정적이다.

조선은 이르고나가는 경에 하는 김정은동지의 평도는 거대한 정치적가속도를 안고있다. 우리 원수님의 로숙하고 세련된 평도는 설계와 구상이 위대할뿐아니라 현실이 단호하고 판단속도가 빠르며 전체적력과 추진력이 있어서도 비상한 속력을 가지고있는 세계적인 기적들을 단숨에 창조한다. 우리 원수님의 정치는 지능해가 다르

고 올래가 다르며 어제와 다르게 오늘이 다른 놀라운 가속도를 내는것으로 하여 만사람을 경탄시킨다.

우리 원수님께서 일어나가는 정치적가속도는 어버이수령님께서와 위대한 장군님께서 채택해오신 주체의 제도와 곧바로 이어져있기에 최고의 속도상승을 가져온다.

혁명승리의 모든 성공담들이 담보되어있는 백두의 행군에서 한치의 탈선도 없이 나가시기에 그의 정치는 비상한 가속도를 안고있는것이다.

그이께서는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물려 주신 승리의 력사와 전통을 소중히 안고있고 김일성민족의 자랑으로 대대손손 전해질 조신속도를 일으키시며 나라를 이끄신다.

세계 어느 나라 정치가에게 이런 영웅의 력이 갖추어져있는가.

이것을 생각할 때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평도를 받는 조선인민으로 사는 긍지로 가슴부풀고 그의 평도를 따라 미래를 앞당겨가는 자부나 넘친다.

우주개발국의 활동도 맹렬하게 벌어지고있다. 높은 수준의 실용위성들과 운반수단들을 연구개발하기 위한 사업이 활력있게 벌어져 우리 나라의 우주개발사업이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 적극적으로 이바지하는 국가적산업으로 더욱 크게 확대되고있다.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이 병진됨으로써 강력한 전쟁억제력이 장비되는것은 물론이고 자체의 핵동력공명이 발전공급주기에 거대한 경제적리익이 예견되고있다.

우리가 젊음으로 움직여가는 소리가 들린다.

바야흐로 우리 조국의 땅에서도, 바다에서도, 하늘에서도 우주에서도 가장 큰 실적이 날것이다. 5년후는 더 멋있고 10년후는 더 경이적일것이며 20년후는 정말로 눈부실것이다. 주체의 성공담, 자주의 성공담이 하늘과 땅과 바다, 우주에 수놓처럼 일어설것이다. 그리고 세계에 있어본적이 없는 창조와 향유하는 시대가 펼쳐질것이다. 주체의 사회주의가 얼마나 멋있는가 하는 것이 증명될것이다.

지구의 도처에서 우리 나라의 전광을 부러워하면서 경제적협력을 요구하는 진자우원들이 날아오고있다. 우리 나라의 정세가 여전히 건강하지만 세계의 많은 기업가들이 조선에 더 크게 눈길을 돌리고있는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위대한 김정은시대가 생각되고 싶어지기때문이다. 우리 위업이 성전하고 백전백승의 위력을 가지고있기때문이다.

수십년동안 미국은 조선에서 희적 대탈라는 천리마를 되돌려세워보고도 실패하였다. 천리마의 기세를 꺾어보고도 온갖 박약을 다하였다. 그러나 진실성이 그 천리마는 새로운 미소를 향하여 더 높이 솟아오르고있다.

젊어지는 시대!  
우리가 궁지높이 외우는 이 말속에는 보다 깊고 성스러운 내용이 있다.

이말에도 저녁에도 위구로 또 외워보고싶은 마음이 있는가. 우리의 원수님과 혈연적으로 이어진 뜨거운 정이 반영되어있는것이다. 인민이며, 돌이켜보라.

우리는 피눈물의 12월에서부터 오늘에 또 어떻게 걸어왔던가.

얼음같이 쌓인 우리 마음속에서 희망의 불은 어떻게 찾아왔던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안정과 기쁨을 주는 위대한 정치는 손길이 우리의 생활속에 깊이 깊어졌기때문이다. 우리는 그 정을 몸가짐에서, 언어에서, 돌이켜보라.

우리는 피눈물의 12월에서부터 오늘에 또 어떻게 걸어왔던가.

얼음같이 쌓인 우리 마음속에서 희망의 불은 어떻게 찾아왔던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안정과 기쁨을 주는 위대한 정치는 손길이 우리의 생활속에 깊이 깊어졌기때문이다. 우리는 그 정을 몸가짐에서, 언어에서, 돌이켜보라.

우리는 피눈물의 12월에서부터 오늘에 또 어떻게 걸어왔던가.

얼음같이 쌓인 우리 마음속에서 희망의 불은 어떻게 찾아왔던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안정과 기쁨을 주는 위대한 정치는 손길이 우리의 생활속에 깊이 깊어졌기때문이다. 우리는 그 정을 몸가짐에서, 언어에서, 돌이켜보라.

우리는 피눈물의 12월에서부터 오늘에 또 어떻게 걸어왔던가.

얼음같이 쌓인 우리 마음속에서 희망의 불은 어떻게 찾아왔던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안정과 기쁨을 주는 위대한 정치는 손길이 우리의 생활속에 깊이 깊어졌기때문이다. 우리는 그 정을 몸가짐에서, 언어에서, 돌이켜보라.

우리는 피눈물의 12월에서부터 오늘에 또 어떻게 걸어왔던가.

얼음같이 쌓인 우리 마음속에서 희망의 불은 어떻게 찾아왔던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안정과 기쁨을 주는 위대한 정치는 손길이 우리의 생활속에 깊이 깊어졌기때문이다. 우리는 그 정을 몸가짐에서, 언어에서, 돌이켜보라.

우리는 피눈물의 12월에서부터 오늘에 또 어떻게 걸어왔던가.

얼음같이 쌓인 우리 마음속에서 희망의 불은 어떻게 찾아왔던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안정과 기쁨을 주는 위대한 정치는 손길이 우리의 생활속에 깊이 깊어졌기때문이다. 우리는 그 정을 몸가짐에서, 언어에서, 돌이켜보라.

우리는 피눈물의 12월에서부터 오늘에 또 어떻게 걸어왔던가.

얼음같이 쌓인 우리 마음속에서 희망의 불은 어떻게 찾아왔던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안정과 기쁨을 주는 위대한 정치는 손길이 우리의 생활속에 깊이 깊어졌기때문이다. 우리는 그 정을 몸가짐에서, 언어에서, 돌이켜보라.

우리는 피눈물의 12월에서부터 오늘에 또 어떻게 걸어왔던가.

얼음같이 쌓인 우리 마음속에서 희망의 불은 어떻게 찾아왔던가.

우주개발국의 활동도 맹렬하게 벌어지고있다. 높은 수준의 실용위성들과 운반수단들을 연구개발하기 위한 사업이 활력있게 벌어져 우리 나라의 우주개발사업이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 적극적으로 이바지하는 국가적산업으로 더욱 크게 확대되고있다.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이 병진됨으로써 강력한 전쟁억제력이 장비되는것은 물론이고 자체의 핵동력공명이 발전공급주기에 거대한 경제적리익이 예견되고있다.

우리가 젊음으로 움직여가는 소리가 들린다.

바야흐로 우리 조국의 땅에서도, 바다에서도, 하늘에서도 우주에서도 가장 큰 실적이 날것이다. 5년후는 더 멋있고 10년후는 더 경이적일것이며 20년후는 정말로 눈부실것이다. 주체의 성공담, 자주의 성공담이 하늘과 땅과 바다, 우주에 수놓처럼 일어설것이다. 그리고 세계에 있어본적이 없는 창조와 향유하는 시대가 펼쳐질것이다. 주체의 사회주의가 얼마나 멋있는가 하는 것이 증명될것이다.

지구의 도처에서 우리 나라의 전광을 부러워하면서 경제적협력을 요구하는 진자우원들이 날아오고있다. 우리 나라의 정세가 여전히 건강하지만 세계의 많은 기업가들이 조선에 더 크게 눈길을 돌리고있는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위대한 김정은시대가 생각되고 싶어지기때문이다. 우리 위업이 성전하고 백전백승의 위력을 가지고있기때문이다.

수십년동안 미국은 조선에서 희적 대탈라는 천리마를 되돌려세워보고도 실패하였다. 천리마의 기세를 꺾어보고도 온갖 박약을 다하였다. 그러나 진실성이 그 천리마는 새로운 미소를 향하여 더 높이 솟아오르고있다.

젊어지는 시대!  
우리가 궁지높이 외우는 이 말속에는 보다 깊고 성스러운 내용이 있다.

이말에도 저녁에도 위구로 또 외워보고싶은 마음이 있는가. 우리의 원수님과 혈연적으로 이어진 뜨거운 정이 반영되어있는것이다. 인민이며, 돌이켜보라.

우리는 피눈물의 12월에서부터 오늘에 또 어떻게 걸어왔던가.

얼음같이 쌓인 우리 마음속에서 희망의 불은 어떻게 찾아왔던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안정과 기쁨을 주는 위대한 정치는 손길이 우리의 생활속에 깊이 깊어졌기때문이다. 우리는 그 정을 몸가짐에서, 언어에서, 돌이켜보라.

우리는 피눈물의 12월에서부터 오늘에 또 어떻게 걸어왔던가.

얼음같이 쌓인 우리 마음속에서 희망의 불은 어떻게 찾아왔던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안정과 기쁨을 주는 위대한 정치는 손길이 우리의 생활속에 깊이 깊어졌기때문이다. 우리는 그 정을 몸가짐에서, 언어에서, 돌이켜보라.

우리는 피눈물의 12월에서부터 오늘에 또 어떻게 걸어왔던가.

얼음같이 쌓인 우리 마음속에서 희망의 불은 어떻게 찾아왔던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안정과 기쁨을 주는 위대한 정치는 손길이 우리의 생활속에 깊이 깊어졌기때문이다. 우리는 그 정을 몸가짐에서, 언어에서, 돌이켜보라.

우리는 피눈물의 12월에서부터 오늘에 또 어떻게 걸어왔던가.

얼음같이 쌓인 우리 마음속에서 희망의 불은 어떻게 찾아왔던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안정과 기쁨을 주는 위대한 정치는 손길이 우리의 생활속에 깊이 깊어졌기때문이다. 우리는 그 정을 몸가짐에서, 언어에서, 돌이켜보라.

우리는 피눈물의 12월에서부터 오늘에 또 어떻게 걸어왔던가.

얼음같이 쌓인 우리 마음속에서 희망의 불은 어떻게 찾아왔던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안정과 기쁨을 주는 위대한 정치는 손길이 우리의 생활속에 깊이 깊어졌기때문이다. 우리는 그 정을 몸가짐에서, 언어에서, 돌이켜보라.

우리는 피눈물의 12월에서부터 오늘에 또 어떻게 걸어왔던가.

얼음같이 쌓인 우리 마음속에서 희망의 불은 어떻게 찾아왔던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안정과 기쁨을 주는 위대한 정치는 손길이 우리의 생활속에 깊이 깊어졌기때문이다. 우리는 그 정을 몸가짐에서, 언어에서, 돌이켜보라.

우리는 피눈물의 12월에서부터 오늘에 또 어떻게 걸어왔던가.

얼음같이 쌓인 우리 마음속에서 희망의 불은 어떻게 찾아왔던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안정과 기쁨을 주는 위대한 정치는 손길이 우리의 생활속에 깊이 깊어졌기때문이다. 우리는 그 정을 몸가짐에서, 언어에서, 돌이켜보라.

우리는 피눈물의 12월에서부터 오늘에 또 어떻게 걸어왔던가.

얼음같이 쌓인 우리 마음속에서 희망의 불은 어떻게 찾아왔던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안정과 기쁨을 주는 위대한 정치는 손길이 우리의 생활속에 깊이 깊어졌기때문이다. 우리는 그 정을 몸가짐에서, 언어에서, 돌이켜보라.

우리는 피눈물의 12월에서부터 오늘에 또 어떻게 걸어왔던가.

얼음같이 쌓인 우리 마음속에서 희망의 불은 어떻게 찾아왔던가.

## 국가책임일군들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와 조선인민군 1월8일수산사업소 참관

【평양 5월 4일발 조선중앙통신】 박봉주동지, 로동철동지, 태종수동지와 김용진, 리무영, 리철만 내각부총리들, 도당책임비서들, 근로단체, 성, 중앙기판 일군들이 4일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와 조선인민군 1월8일수산사업소를 참관하였다.

그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직접적인 발기와 세심한 지도 밑에 희환하게 일떠선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를 참관하였다.

그들은 야영소에 정중히 모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의 동상에 꽃바구니와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렸다.

주체적전진총력미학사상의 요구대로 선권리자, 선 미학성이 보장된 멋쟁이건축물, 세상에 들도 없는 아이들의 공간으로 변형된 야영소의 여러곳을 돌아보았다.

학생소년들의 야영생활에 필요한 모든것이 충창적으로 갖추어져있는 현대적인 야영각들과 국제친선소년회관, 야외운동장, 실내체육관, 실내수영관과 야외

물놀이장, 수족관, 조류사 등을 보며 감탄을 금치 못하였다.

아이들을 나라의 왕으로 내세워 주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송고한 후대판, 미래판을 끝없이 빛내기시며 후대들을 강성조선의 믿음직한 역군으로 키우시기 위해 온갖 로고와 심혈을 바치고있는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위인적정모를 다시금 깊이 새겨주었다.

참관자들은 새로 일떠선 조선인민군 1월8일수산사업소를 들



국가책임일군들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 참관

## 민족대단결의 위대한 전통을 마련하시여 조국광복회창립기념일을 맞으려

오늘은 조국광복회창립 78째 되는 날이다.

뜻깊은 이날에 즈음하여 우리 천만군민은 지금으로부터 근 80년전 전민족을 조국해방의 선봉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던 20대의 백두산청년장군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거룩한 모습을 다할것은 경모의 정을 안고 우러르고있다.

위대한 수령은 평도 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의 민족대단결의사를 내놓으시어 민족을 뿔어나라 우리 민족의 단결을 위하여 한평생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바치시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러한 준비에 기초하여 주체 25(1936)년 5월 중앙의 수령님께서 력사적인 조국광복회창립대회를 소집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조국해방을 위한 력사적회의를 가지게 된 위대한 장군은 크나큰 격정과 흥분으로 세계를 선했다.

위대한 수령님은 회의에서 력사적인 보고를 하시는데 이어 《조국광복회 10대강령》과 규약, 창립선언을 발표하시었다. 회의에서는 전체 조선인민들의 생활을 의사와 념원을 담아 민족의 태양이신 위대한 수령님을 조국광복회 회장으로 높이 추대하시었다.

조국광복회 10대강령은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여 민족의 총동원으로 조국의 해방을 이룩할것을 호소한 전민항쟁선언이었으며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단계에서의 전략전술적 원칙을 과학적으로 규정하고 근로대중의 력과 각계각층을 애국적행동의 공동된 리해관계를 철저히 고려하여 조선혁명의 앞길을 뚜렷이

밝힌 독창적인 강령이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적평도에 의하여 조국광복회가 창립됨으로써 새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은 항일무장투쟁과 밀접히 결합되어 보다 조직적이며 체계적으로 그리고 조국적분위에서 빨리 발전하게 되었으며 모든 반제투쟁을 조국의 해방을 위한 투쟁으로 힘있게 조직 동원할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위대한 수령님의 두리에 전민족적 반일애국력량을 더욱더 계속확대시켜 혁명의 대중적지반을 강화할수 있게 되었으며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은 전국적분위에서 힘있게 발전시켜나갈수 있게 되었다.

조국광복회창립은 혁명의 먼 앞날을 내다보이고 주체적력량을 꾸준히 키워오신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적평도의 고귀한 결실이었다.

조국광복회가 창립됨으로써 반일민족해방투쟁은 항일무장투쟁과 밀접히 결부되어 전국적, 전민족적분위에서 보다 조직적이고 체계성있게 급속히 전개하게 되었으며 모든 반일력량을 조국의 해방을 위한 투쟁에로 조직동원할수 있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후 백두산밀영을 중심전진경로로 하여 조선인민혁명군의 군사정치활동을 적극 벌리시면서 조국광복회조직을 확대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펼치고가시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적평도에 의하여 조국광복회는 짧은 시일안에 수만명의 회원들 가진 반일민족적으로 확대발전되게 되었다.

각계각층의 인민들이 반일민족통일전선의 기치밑에 위대한 수령님의 두리에 굳게 뭉치면서

조국광복회 10대강령은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여 민족의 총동원으로 조국의 해방을 이룩할것을 호소한 전민항쟁선언이었으며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단계에서의 전략전술적 원칙을 과학적으로 규정하고 근로대중의 력과 각계각층을 애국적행동의 공동된 리해관계를 철저히 고려하여 조선혁명의 앞길을 뚜렷이

밝힌 독창적인 강령이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적평도에 의하여 조국광복회가 창립됨으로써 새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은 항일무장투쟁과 밀접히 결합되어 보다 조직적이며 체계적으로 그리고 조국적분위에서 빨리 발전하게 되었으며 모든 반제투쟁을 조국의 해방을 위한 투쟁으로 힘있게 조직 동원할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위대한 수령님의 두리에 전민족적 반일애국력량을 더욱더 계속확대시켜 혁명의 대중적지반을 강화할수 있게 되었으며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은 전국적분위에서 힘있게 발전시켜나갈수 있게 되었다.

조국광복회창립은 혁명의 먼 앞날을 내다보이고 주체적력량을 꾸준히 키워오신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적평도의 고귀한 결실이었다.

조국광복회가 창립됨으로써 반일민족해방투쟁은 항일무장투쟁과 밀접히 결부되어 전국적, 전민족적분위에서 보다 조직적이고 체계성있게 급속히 전개하게 되었으며 모든 반일력량을 조국의 해방을 위한 투쟁에로 조직동원할수 있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후 백두산밀영을 중심전진경로로 하여 조선인민혁명군의 군사정치활동을 적극 벌리시면서 조국광복회조직을 확대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펼치고가시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적평도에 의하여 조국광복회는 짧은 시일안에 수만명의 회원들 가진 반일민족적으로 확대발전되게 되었다.

각계각층의 인민들이 반일민족통일전선의 기치밑에 위대한 수령님의 두리에 굳게 뭉치면서



# 김정숙평양방직공장 노동자합숙 준공식 진행, 온 나라의 축복속에 합숙생들 입사

## 1 면 에서 계속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마련해주신 5.1절 경축 노동자연회에 참가한 직로공 조경에는 하루하루가 정말 꿈만 같다고 하면서 북받치는 걱정을 금치 못하였다.

뜻깊은 명절날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방직공들에게 가슴가득 사랑의 선물을 안겨주시고 올해 평명성절에는 합숙생 우리

들에게 특별히 잘 익은 과일도 보내주시며 따뜻한 은정을 베풀어주시었다.

5.1절에는 성대한 연회장에서 생일을 쇠고 오늘은 또 궁전같은 합숙에 보금자리를 뒀으니 우리들에게는 날마다 더 큰 행복이 기다리고있는것만 같다.

연사공 김복향의 아버지, 조방공 김항미의 어머니를 비롯한 합숙생들의 부모들도 딸 자식들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마련해주신

합숙에 입사한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뻐한달음에 달려왔다. 와보니 말이 합숙이지 호텔이면 이보다 더 훌륭하겠는가고 감탄을 표시하였다.

그들은 자식들을 외지에 보내놓고 근심도 했는데 우리 당에서 이렇게 궁궐같은 합숙을 지어주었다고 하면서 평범한 방직공들의 친부모가 되어서 사랑을 부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 합숙생가족모두의 마음

을 담아 큰절을 올렸다.

합숙생들은 천짜는 평범한 노동자들에게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이런 황홀한 궁전을 마련해주셨으니 분에 넘치는 그 은덕에 무슨 말로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다. 하루를 백날, 천날로 주름잡아 더 많은 천을 짜고 또 짜서 팔았는 그 사랑을 온 세상에 전해가겠다고 격동된 심정을 토로하였다.

그들은 오늘의 이 행복을 영원히 잊지 말

자고 새 합숙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배반 다에서 정다운 공장의 전경과 대동강반의 풍치도 부감하면서 즐거운 한때를 보내었다.

글자의 천생산기지에 펼쳐진 가슴뜨거운 현실은 생산의 직접적담당자인 노동자들을 제일로 여기시며 천만복을 안겨주시려 마음써오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유훈을 빛나게 실현해나가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대배같은 은덕이 안아온

경사이며 로동계급이 주인된 우리 세상에 서만 꽃피달수 있는 사랑의 전설이다.

김정숙평양방직공장의 일꾼들과 노동자들을 비롯한 온 나라의 로동계급은 근로하는 인민을 하늘처럼 떠받치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숭고한 뜻과 뜨거운 사랑을 가슴깊이 새기고 로동계급의 이 세상, 인민의 나라를 천만년 받들어 더 많은 일을 할 혁명적열의에 넘쳐있다.



## 영농시기별에 따르는 기술적요구 모내기에서 평당 포기수와 포기당 대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농업생산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하여서는 당의 농업정책과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지어야 합니다.》

모내기를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과학기술적으로 하여야 알곡 수확고를 높일수 있다.

평당 포기수와 포기당 대수를 정확히 보장하는것은 정보당 수확고를 높이기 위한 중요한 담보이다.

때문에 지대별기후 및 토양 조건과 품종특성, 모형태별특성을 고려하여 평당 포기수와 포기당 대수를 과학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평당 포기수를 늘일수록 개체(포기)의 소출량은 적어진다. 그것은 평당 포기수를 늘이면 최고아지치는 시기가 빨라지고 개체무리속의 빛, 통풍조건, 온도조건이 좋아져 물질생산 능력이 높아지며 병발생도 적고 넘어짐경험이 강해진다. 결과 최고아지수는 배개 심는데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지만 이삭아지비율이 높고 이삭당 알수가 많으며 여문과과 찬알무게도 높다. 그러나 지나치게 드물게 심으면 필요없는 생육공간이 생기므로 빛에너지를 낭비하여 평당 포기수를 바로 정하여야 한다.

말라죽는것과 같은 로화가 빨리 온다. 그리고 벼무리마름병을 비롯한 병피해가 심하고 대가 가늘어져 넘어짐경험이 약해진다. 결과 아지수는 일정하게 많아지나 이삭아지비율, 이삭당 알수가 줄어들며 여문과과 찬알무게도 떨어진다.

반대로 평당 포기수를 줄이면 최고아지치는 시기가 좀 늦어지고 개체무리속에서의 빛, 통풍조건이 좋아져 물질생산 능력이 높아지며 병발생도 적고 넘어짐경험이 강해진다. 결과 최고아지수는 배개 심는데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지만 이삭아지비율이 높고 이삭당 알수가 많으며 여문과과 찬알무게도 높다. 그러나 지나치게 드물게 심으면 필요없는 생육공간이 생기므로 빛에너지를 낭비하여 평당 포기수를 바로 정하여야 한다.

서해안지방에서 5월에 모내기하는 영양평상모와 영양알모, 속성모는 80~100포기, 이른 큰모나 단지모는 50~80포기정도에서 지력조건을 고려하여 평당 포기수를 바로 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6월에 모내기하는 속성모는 평당 110~130포기범위에서, 일수가 6일되는 벼모를 뒤그루로 낼 때에는 평당 120~140포기, 뒤그루로모는 100~120포기로 정하는것이 좋다. 올해 모내는 시기가 앞당겨져 영양평상모가 길어지는것과 7~8월 기상조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밀식재배를 하는 경우에도 종전보다 평당 10포기정도 적게 심어 병피해와 넘어짐현상을 막도록 하여야 한다.

포기당 대수는 2~3대를 기본으로 하며 모내는 시기가 늦을수록 1~2대 더 늘이는 원칙에서 정하여야 한다.

농업과학원 작물재배연구소 서준성

## 시대의 전형을 키우는 사업에서 중시한 문제

### 원산시당위원회 사업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우리 일꾼들과 당원들은 누구나 다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환영생 걸으신 인민사랑의 길을 우리 당과 함께 곳곳이 이어가는 참된 동지, 전우가 되어야 합니다.》

지난해 원산시당 책임비서로 윤상범동무가 갓 임명되었을 때의 일이다.

시의 전반사업을 로해하던 당 책임일꾼은 새형의 인간전형을 키우는 사업의 중요성을 세삼스럽게 느끼게 되었다. 시대의 전형이 배출된 단위와 그렇지 못한 단위의 실적차이가 그것을 말해주고있었다.

시대의 전형들이 있는 단위, 그들의 역할이 활발한 단위들이 한 단위의 실적차이는 이미 말쑥한 성과가 컸지만 자만함이 없이 더 큰 목표를 향해 내달리고있었다.

그는 자력갱생정신을 발달하며 대중을 이끌었다. 자신부터가 기술혁신, 창의고인의 능수가 되어 범당도 하고 창안도 하였다. 직장의 현대화를 늘 수 준에서 기록해놓았다. 그러한 단위가 3중3대혁명붉은기직장으로 되게 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이밖에도 시대의 전형들이 배출된 여러 단위들에서는 세목의 붉은기를 팔릴 휘날리며 생산과 건설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고

있었다.

이를 통해 시장일꾼이 찾은 결론이 있다.

새형의 인간전형들이 있는 단위일수록 대중적영웅주의가 더욱 높이 펼쳐진다는것, 결국 선군시대 공로자대렬이 늘어날수록 시의 전진력이 백방으로 강화된다는것이였다.

새형의 인간전형육성, 시장위원회 비서 문학원동무는 대상을 바로 선정하고 그들을 시대의 전형들로 키우는 사업을 방법론있게 진행하였다.

우선 긍정적모범의 주인공들을 적극 찾아내고 그들을 키우는 사업에 선차적인 힘을 넣었다.

원산시에군인수지일용품공장 사출직장 직장장 박광일동무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자력갱생정신을 발달하며 대중을 이끌었다. 자신부터가 기술혁신, 창의고인의 능수가 되어 범당도 하고 창안도 하였다. 직장의 현대화를 늘 수 준에서 기록해놓았다. 그러한 단위가 3중3대혁명붉은기직장으로 되게 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이밖에도 시대의 전형들이 배출된 여러 단위들에서는 세목의 붉은기를 팔릴 휘날리며 생산과 건설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고

있었다.

이를 통해 시장일꾼이 찾은 결론이 있다.

새형의 인간전형들이 있는 단위일수록 대중적영웅주의가 더욱 높이 펼쳐진다는것, 결국 선군시대 공로자대렬이 늘어날수록 시의 전진력이 백방으로 강화된다는것이였다.

새형의 인간전형육성, 시장위원회 비서 문학원동무는 대상을 바로 선정하고 그들을 시대의 전형들로 키우는 사업을 방법론있게 진행하였다.

우선 긍정적모범의 주인공들을 적극 찾아내고 그들을 키우는 사업에 선차적인 힘을 넣었다.

원산시에군인수지일용품공장 사출직장 직장장 박광일동무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자력갱생정신을 발달하며 대중을 이끌었다. 자신부터가 기술혁신, 창의고인의 능수가 되어 범당도 하고 창안도 하였다. 직장의 현대화를 늘 수 준에서 기록해놓았다. 그러한 단위가 3중3대혁명붉은기직장으로 되게 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이밖에도 시대의 전형들이 배출된 여러 단위들에서는 세목의 붉은기를 팔릴 휘날리며 생산과 건설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고

한 혁명과업수행에서 특출한 성과를 이룩하고있는 사람, 직업을 귀천을 가리지 않고 맡겨진 혁명초소에서 헌생을 목숨 바치는 사람들을 부문별로 하나하나 찾아나갔다. 그 과정에 시대의 주인공들을 찾아낼수 있었다.

지난해에는 송도원은하리복공장 지배인 조철주, 제5작업반 반장 박한남동무들과 강원도산원 종합실험검사실 실장 정영옥, 원산편직공장 로동자 리희순동무들을, 올해에는 원산시 해안학교 교원 로금숙, 원산시목산공장 작업반장 리영옥동무들을 시가 따라배워야 할 본보기로 보란듯이 내세웠다.

시장위원회는 다음으로 긍정적모범의 주인공들을 따라배우도록 하기 위한 사업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실속있게 진행하고있다.

시대의 전형들을 소개하는 직판관을 개건하고 그를 통한 교양사업을 참신하게 하고있다. 월, 분기마다 시에서 배출된 본보기대상들의 소책자를 사진과 함께 소개판에 게시하고 선전하는 사업을 중단하지 않고있다.

시장위원회에서는 당초급선전일꾼들의 역할도 높도록 하

고있다.

합숙강사, 강연강사, 선동원을 비롯한 당초급선전일꾼들이 긍정적소행의 주인공들의 숭고한 정신을 따라배우도록 하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드세게 벌리도록 하고있다.

시대의 전형들을 키우고 내세워주는 사업에서 시장위원회가 특별히 관심하고있는 문제는 주관부서뿐 아니라 모든 당일꾼들이 이 사업에 한걸음이 떨쳐나서게 하고있는것이다. 여기서 중시하고있는것은 당선전부문과 당조직부문의 배합작전이다.

해당 부서 책임일꾼들부터 모범을 보이고있다.

시장위원회 비서 김일룡동무가 로력영웅이며 사업과 생활의 본보기로 도적으로 이름을 떨치고있는 원산유리병공장 지배인 박원근동무를 잘 이끌어주어 인간전형의 선구자로서의 영예를 계속 빛내여나가게 하고있는것이 좋은 실례이다.

시대의 전형들을 따라배우는 운동이 활기있게 진행될수록 시의 전반사업에서 훌륭한 성과들이 이룩되고있다.

새형의 인간전형들을 키우고 내세워주는 사업이자 단위의 전진력강화와 높은 실적이기에 시장위원회는 그토록 이 사업을 중시하고있는것이다.

본사기자 전경서

분덕군 통합협동조합의 일꾼들과 농장원들이 중소농기구를 넘겨주기 위한 사업을 힘써 추진하고 있다. 중소농기구준비에서는 제 5, 3 작업반들이 모범을 보였다.

중소농기구준비에 힘을 넣어 제 5작업반원들은 달구지와 호미, 낫 등 중소농기구를 제때에 수리하면서 부족되는것을 자체의 힘으로 만들었다. 제 3작업반의

농장원들도 중소농기구를 넘겨주기 위한 사업에 큰 힘을 넣어 성과를 거두었다. 본사기자







# 절세위인의 투철한 자주통일이지의 결정체

우리는 민족의 영원한 태양이신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조국통일 3대원칙을 천명하신 42년을 뜻깊게 맞이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숭고한 애국적의지와 정력적인 행동으로 조국통일 3대원칙을 마련해주셨기에 우리 민족은 자주통일위업의 최후승리를 확신하며 오늘도 부단히 난관을 과감히 뚫고 통일조국건설의 위대한 비전을 향해 힘차게 전진해나가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은 조국통일문제를 민족의 역사와 리익에 맞게 민족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갈수 있는 근본원칙과 근본방도를 천명한 조국통일의 조서이다.》

1970년대 초 날로 높아가고있는 남조선인민들의 반과소민주화투쟁과 조국통일운동으로 하여 궁지에 몰린 미국과 피뢰패당은 《두개 조선》을 영구화하기 위한 음모를 꾸미고 그 실현을 위해 발악적으로 책동하였다.

천리해안의 예지와 과학적인 통찰력으로 조성된 정세를 깊이 꿰뚫어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체 60(1971)년 8월 남조선의 집권당을 포함한 모든 정당, 사회단체 및 개별적인 인사들과 아무때나 접촉할 용의가 있다는 폭넓은 협상방안을 제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북남대화를 통하여 인민의 분열을 지우려는 《두개 조선》 조작책들을 저지파탄시키고 조국통일운동을 힘있게 전진시키실것을 결심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폭넓은 북남협상방안은 남조선의 각계각층 인민들의 지대한 지지와 호응을 불러일으켰으며 세대의 많은 나라 인사들도 그것을 공명정대한 현실적인 제안으로 지지하였다.

어버이수령님의 북남협상제안으로 사태가 돌변하자 북남사이의 그 어떤 접촉도 거부해오던 남조선당국자들은 하는수없이 대화의 마당에 끌려나오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민족애와 높은 덕망, 원숙한 정치적수완으로 북남사이에는 분렬사상 처음으로 여러 차례의 회담이 열렸으며 주체 61(1972)년 5월 초에는 평양에서 북남대외경제회담이 열리게 되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5월 3일 북남고위급회담에 참가하기 위하여 평양에 온 남남대표를 몸소 만나주시였다.

대해결은 아랑과 포용력으로 맞아주시는 어버이수령님앞에서 남남대표는 너무나 황송하여 몸둘바를 몰라하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 남남대표에게 조국을 하루빨리 통일하지 못하고 분열을 지속시킨다면 우리 민족은 령도자들의 통찰력으로 필수 있다고, 하루빨리 조국을 통일하여야 하며 통일된 조국을 후대들에게 넘겨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계속하여 그이께서는 조국을 통일하기 위해서는 통일문제해결의 기초로 필수하다는 근본원칙을 솔게 세우셨는데 중요하다고, 쌍방이 합의하여 세운 근본원칙이 있어야 북과 남이 조국의 통일을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할수 있고 모든 문제를 성실하게 풀어나갈수 있다고 하시면서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는 반드시 외세의 간섭이 없이 자주적으로, 민족대단결을 도모하는 원칙에서 평화적방법으로 해결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이날 위대한 수령님께서 일찍부터 구상하여오던 조국통일 3대원칙을 한조항, 한조항 짚아가시며 그 본질적내용과 정당성을 사리정연하게 밝히시였다.

수령님께서 조국통일문제를 민족자체의 힘에 의거하여 자주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우리 공화국정부의 일관한 원칙적립이라고 하시면서 우리 민족끼리 손

잡고 통일하여야 한다고, 우리 민족끼리 접촉하여 대화하면 능히 오해와 불신을 없애고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이룩할수 있다고, 우리 민족의 힘을 믿지 않고 남에게 의존하려는 사대주의경향을 철저히 반대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는 누가 누구에게 이기고 지는가 하는 문제가 아니라 외세에 의하여 갈라진 민족의 단합을 이룩하고 전국적범위에서 자주권을 실현하는 문제인것만큼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민족대단결을 도모해야 하며 그러자면 사상과 제도, 정경과 신앙의 차이를 초월하여 단결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평화통일의 원칙에 대해서도 논리정연하게 해설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말씀은 민족의 운명을 우려하고 통일을 바라는 사람은 물론 민족앞에 큰 죄를 지른 사람이라고 해도 민족적정신을 지녔다면 주저없이 받아들일수 있는 지극히 애국애족적인 가르침이였다. 그것은 우리 민족자체의 힘으로 조국통일위업을 반드시 성취하여야 하는 7천만겨레의 의지를 온 세상에 선포한 역사적인 선언이였다.

하기에 남남대표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국통일 3대원칙을 전적으로 지지찬동해 당국자도 찬성할것이라고 하면서 그것을 《통일의 큰 기둥》으로 삼을것을 맹세합니다.》 라고 정중히 말씀하셨다.

위대한 수령님의 탁월한 령도에 의해 7월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 3대원칙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7.4 공동성명이 발표됨으로써 조국통일 3대원칙은 북과 남이 합의하고 온 세상에 선포한 명실공히 민족공동의 통일강령으로 역사에 아로새겨졌다.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 3대원칙은 북과 남이 합의하고 온 세상에 선포한 명실공히 민족공동의 통일강령으로 역사에 아로새겨졌다.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 3대원칙이야말로 민족의 분열로 하여 겨레가 당하는 불행과 고통을 누구보다 가슴아파

하시며 우리 민족에게 통일된 조국을 안겨주시려고 헌신의 낮과 밤을 보내시며 정력적인 활동을 벌리신 우리 수령님의 불면불휴의 로고와 투철한 자주통일의 의의 빛나는 결정체이다.

조국통일 3대원칙이 발표되던 그날 북남회담이 감격과 환희가 차고넘쳐났다. 이 역사적인 사변을 남조선인민들은 《민족분열의 비극을 중지부를 꺾고 조국통일위업을 앞당기게 된 력사의 새로운 분기점》, 《남북통일의 밝은 서광》이라고 하면서 열광적으로 환영하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 3대원칙은 수령님의 유혹을 거머안 팔릴수 있는 신념과 의지를 지니시어 이 땅에 6.15 통일시대를 펼쳐주시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에 의하여 더욱 빛을 뿌리게 되었고 우리 민족의 자주통일운동은 승리의 명마를 향해 즐기차게 전진하게 되었다. 우리 겨레는 천만년세월이 흘러도 조국의 통일을 위해 쌓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업적을 영원히 잊지 않을것이다.

우리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바라지 않는 미국과 남조선피뢰당은 북남관계를 최악의 파국상태에 몰아가면서 반공화국대결소동에 피눈이 되어 날뛰고있다. 그러나 분열주의세력이 아무리 발악해도 조국통일 3대원칙이 밝혀준 자주통일의 길을 따라 억세게 싸워나가는 우리 민족의 앞길을 가로막을수 없다.

오늘 조국통일운동의 전두에는 불세출의 위인인 김정은의 김정은동지께서 서계하신다. 이의의 무비의 당백과 배방, 탁월한 선군령도는 자주통일위업승리의 확고한 담보이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조국통일 3대원칙을 변함없이 틀어쥐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애국의 명도 따라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세기적숙원을 거머안 성취하여야할것이다.

본사기자 라 설 허

# 승리자의 긍지도높이 총련 제23차 전체대회를 빛내이자

## 총련 본부들에서 결기모임 진행

총련 제23차 전체대회를 빛내이기 위한 총련 본부들의 결기모임이 일본 각지에서 진행되었다.

총련 제23차 전체대회를 영광스러운 감정에 새로운 전성기에서의 비약의 토대로 하기 위한 70일운동을 총공격적으로 벌리는 총련 오사카본부 일군들과 열성자들의 결기대회에 호응하는 총련 도쿄도본부 일군들과 열성자들의 결기모임이 4월 24일 일본 도쿄에서 있었다.

모임에는 남승우 총련중앙상임위원회 부의장과 황명 총련 도쿄도본부 위원장을 비롯한 일군들과 열성자들이 참가하였다.

# 동포신문 《통일》이 특집

태양절에 즈음하여 우즈베키스탄에서 발행되는 동포신문 《통일》이 4월 24일 《뜻깊은 날》이라는 제목으로 특집하였다.

신문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탄생일인 태양절을 성대히 경축하였다고 밝혔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오셨을 때 나라 대표단들과 제29차 4월의 봄 선전에속출한 참가

창명 위원장이 보고를 하였다. 그는 총련 오사카본부의 결기대회에 참가하여 일군들과 열성자들의 드높지 않은 의지와 진심어린 맹신의 호소를 크나큰 감동속에 받아안고 많은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총련 제23차 전체대회를 제일조선인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가기 위한 비약의 토대로 되게 할데 대해 그는 강조하였다.

이어 총련 에도가와지부 위원장 장명진 등이 토론하였다. 남승우 부의장이 발언하였다. 그는 총련 도쿄도본부관하 일

군들과 열성자들이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사상과 의도를 빛나게 실현할 각오와 결심을 안고 70일운동을 총공격적으로 벌려나가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정세가 엄혹할수록 총련일군들과 열성자들이 일심단결하여 동포군중과 함께 시련과 난관을 뚫고나가야 한다고 언명하였다.

모두가 분발하여 사업목표를 거머안 달성함으로써 총련 제23차 전체대회장에 승리의 긍지를 안고 들어서자고 그는 강조하였다.

총련 가나가와지부, 지바지부, 아이치지부 등 24일과 25일 결기모임을 가지였다.

회가 성대히 진행되었다. 지역 대동강간의 명당자리에 건립된 주체사상관의 봉화에서 밝은 빛이 온 나라를 밝게 비친다고 신문은 썼다.

신문은 태양절경축 제우즈베키스탄동포들의 제21차 조선민족애호총동맹을 성고 제중조선인총련합회 일군들과 동포들의 조국방문인상담을 소개하였다.

《승마주루에 넘쳐나는 회향과 광안》이라는 제목으로 미림과 구락부를 소개하는 기사도 신문은 사진과 함께 편집하였다. [조선중앙통신]

# 역적패당이 반인륜적조악의 대가를 통통히 치르게 될것이다

## 《세월》호참사 박근혜가 책임지라

### 남조선의 15개 지역에서 반 《정부》 투쟁 전개, 각계층 군중 5만 여명 참가

남조선의 인터넷신문 《통일뉴스》에 의하면 1일 남조선의 민주로총 로조인들과 각계층 군중 5만여명의 참가하여 15개 시, 도에서 반 《정부》 투쟁이 벌어졌다. 서울역광장에서 진행된 집회에는 1만여명이 참가하였다. 집회에서 발언자들은 이번 《세월》호참사는 현 《정권》과 자본에 의한 학살사건이라고 성토했다. 지금 재판을 당한 유가족들과 민중의 분노로 온 남녘땅이 들끓고있다고 언명하였다.

《세월》호 선장과 박근혜는 저혼자 살겠다고 생때같은 아이들을 버리고 달출했다고 규탄하였다.

철도, 의료, 교육 등 공공부문 민영화와 정경유착을 막아내지 않는다면 이번과 같은 참사는 언제든 재현될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총체적인 부실과 무능이 부른 《세월》호 참사는

## 살인 《정권》에 대한 민심의 치솟는 분노

남조선에서 력적 《세월》호 참침몰은 사고가 발생한지 20일이 되었지만 대참사가 인한 충격은 아직 가시지 않고있다. 오히려 날이 갈수록 이번 특대참사의 장본인 피뢰당에 대한 민심의 저주와 규탄, 분노의 목소리는 더욱 높아지고있다.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한 피뢰당의 반인륜적저지 반인민적 처사에 남조선 각계는 치를 떨고있다.

얼마전 민주생생화통일주권련대(민권련대)는 피뢰당부를 반대하는 투쟁에 참가할것을 주장하여 호소문을 발표하였다.

단체는 호소문에서 《세월》호 참침몰된 여러날이지났지만 수장된 사람들중 단명도 구원하지 못하였다고 밝히고 이것은 민중의 안전과 생명은 안중에도 없던 권력의 자리만 지키는 무능한 《정부》패배라고 단죄하였다.

호소문은 《세월》호 참침몰된 것은 당국의 태만이라고 하면서 규탄화성책임을 지고 권력의 자리에서 물러날것을 요구하였다. 민주로총은 얼마전 회의를 가진 조국 피뢰당부를 규탄하는 투쟁에 나설것을 선언하였다. 단체는 력적선침몰사고와 관련하여 취하고있는 당국의 태도에 격렬을 금할수 없어 회의 열었다고 하면서 자본의 리윤추구와 《정부》의 무분별한 규제완화정책 그리고 실종자구조를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는 당국의 무능과 무책임한 태도를, 반인민적저지를 강력히 단죄하고 민중의 분노를 대변하여 투쟁에 나설것을 다짐하였다.

남조선 인터넷신문 《프레시안》에 의하면 경제정의 실현시인원합도 성명을 발표하며 력적선침몰사고와 관련한 당국의 태도를 비난하였다. 단체는 성명에서 《정부》가 침몰된 력적 《세월》호에 대한 구조작업을 제대로

《호참사》에 대해 박근혜가 직접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산업체와 비정규직문제 등 모든 사회문제에 대해서도 현 《정부》에 엄중한 책임을 물을것이라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민주로총은 박근혜외로, 조국기본보장, 민영화저지, 비정규직철폐 등 11대 요구와 《세월》호 참사해결을 위한 5대 요구를 제기하고 앞으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려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집회가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박근혜가 책임져라!》, 《더이상 죽이지 말라!》는 구호를 외치며 시위행진을 벌였다.

《한국로총》도 집회를 가지고 당국에 재판을 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것을 요구하였다.

로동시간단축과 임금문제를 비롯하여 로동조합의 권리를 위해 싸워나갈것을 주장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당국의 무책임한 태도를 규탄하는 남조선인민들

## 력사의 심판대에 오를 그날은 멀지 않았다

### 당장 교수대에 매달아야 한다

이번에 남조선에서 일어난 력적선침몰사고는 단순히 우연히 일어난 참사가 아니다. 《세월》호의 비극적참사는 전적으로 박근혜의 무능과 반인민적저지가 빚어낸 필연적 결과이다.

베가 침몰하는것을 뻔히 눈보고 보면서도 사람들을 구원해내지 못했다는것이 말이나 되는가.

대우 경약을 금할수 없는 것은 박근혜가 그 책임을 아예 갖들고 고스란히 밀어부쳤다는 사실이다. 이것이 과연 사람이 할것인가. 저만 살겠다고 배와 승객들을 모두 뺏아버리고 뺏지바람으로 달출한 선장이나 박근혜나 같고같은 인간추물들이다.

안해나 자식들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 죄를 지었다면 그 책임을 가장이 지는것은 초보적인 상식이다. 하물며 명성이 집권자라면 웅장 자기의 무능력과 무책임, 반인민적저지가 빚어낸 이번 사태에 대해 유가족들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고 권력의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그런데도 박근혜는 《세도 채신》이니 뭐니 하고 남에게 책임을 고스란히 넘겨주면서 시지미를 톡 빼고있다. 남조선 각계는 물론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언론들까지도 박근혜가 《대통령》은 고사하고 인간이 아니라고 비난하고 있는것은 결코 우연한것이 아니다.

## 가장 큰 해양참사, 당국의 무책임

### 외국 언론들이 주장

남조선의 진도앞바다에서 일어난 력적선침몰사고와 관련하여 세계 여러 나라 언론들은 무거운 남조선사회질서와 피뢰당의 무책임에 강하게 비난하고있다. 미국신문인 《월 스트리트 저널》은 《세월》호 침몰사고가 일어난 직후 《정부》의 안일한 태도에 대한 남조선인민들의 분노가 높아지고있다고 보도하였다. 신문은 남조선 당국이 안전기준을 엄격하게 시행하지 않았다는 소식이 인 리테드임을 통하여 급박히 퍼지기도하였고 하면서 선한 책임을 짐, 검사하는 시간이 몇 분에 불과하다고 폭로하였다.

미국의 《뉴욕 타임스》는 1월에 력적선침몰사고소식과 함께 력적선에 대한 생존회망이 사라지고있다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사태를 끝까지 수습해야 할 선장이 가장 먼저 탈출하고 44척에 달하는 구명정이 거의 사용되지 못한 점, 잘못된 초기대피안 등이 대참사를 불러왔다고 전하였다. 《뉴욕 타임스》는 《선장은 도망치고 승객은 배와 함께 가라앉아 전몰이 깨졌다》라

지나 시가 남조선에서 대형 참사가 났을때 일어났지만 이번 력적선침몰사고와 같은 참사는 찾아보기 드물다. 수많은 학생들을 바다속에 수장해버리고도 포물만 한 의지도 드러내지 않는 박근혜야말로 큰 인두를 쓴 뱀형통들이다. 저물은 속이지 못한다면 야만적인 총칼독재통치로 민주주의의 인권을 장그리 말할하고 사회정체를 무고한 인민들의 피바다로, 철창없는 감옥으로 만들었던 군사정권의 종자가 어디 가졌는가.

지금 피뢰정권은 침몰하는 배에서 빠져나온 선장과 선원들에게 《엄청한 처벌》을 가하겠다고 떠들어대고있다고 한다. 하지만 《대통령》이라고 하는 박근혜도 마땅히 피고석에 앉아야 한다.

반인륜적범죄에는 시효가 없다. 아이들을 바다에 저물로 내던진 살인마 박근혜는 교수대에 올라야 한다. 대우군중기계작업소 지배인 장 정 남

## 《대통령》을 잘못 뽑은단

남조선의 전라남도 진도앞 바다에서 일어난 력적선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한 보도는 너무나 충격적이다. 바다를 향해 달려가던 마지막 순간까지도 부모들을 애레게 찾았을 애 어린 학생들의 불쌍한 모습이 눈앞에 선히 보이는 듯 하다. 생때같은 자식들을 한낱살인에 잃은 부모들의 슬픔과 분노는 또 얼마나 컸겠는가. 그런데도 피뢰정권자는 아직까지 민중앞에 자기의 죄악에 대해 솔직히 토설하고 잘못을 비는 일을 하지 않고 있다. 기껏해서 간접적인 《사과》나 한번 조개들을 물에대는것이나 하고있다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집권자는 고사하고 인간적 자격도 없는 추물들이다.

항시 시집도 못 가고 아이도 낳아지 않은 박근혜가 어떻게 자식없는 부모들의 심

정을 이해할수 있겠는가. 치마를 입었고고 해서 다 녀성이 아니다. 아이를 낳아 키우는 어머니의 심정, 가정의 행복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만이 진정한 녀성이자, 박근혜는 애당초 자식들때문에 울고 있는 인간들의 고통한 세계를 잊고있으며 리해할수 없었다. 불행에 빠진 아이들을 구조하는 일은 내행개치고 미국 상선앞에서 피뢰를 치며 야양을 면 박근혜의 야말로 천하의 페루페데안이 분명하다. 비유먹은 암개같이 다 늙어 빠진 주체에 대항선전의 미국 상선들을 끌어들이며 치마바람을 일으키며 할것, 못할것 가리지 않고 부상을 피운 이런 친인척이 《대통령》이라니 남조선사람들이 어찌 불행과 재난을 당하지 않았는가.

인간의 정이없는 포물만 큼도 없고 독재와 전횡밖에

모르는 무지했던 독재자의 딸을 《대통령》으로 잘못 뽑은것에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에게 목숨을 잃고있다. 박근혜가 청와대에 등지고 있는 현재 제2, 제3의 《세월》호참사는 계속될것이다.

두꺼비는 비오는데 아무리 들어있어도 매끈해지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박근혜에게는 더이상 약이 없다. 역도가 더

관하지 않는 썩어빠진 남조선 판치. 반역정권에 악명떨치는 박근혜때가 빚어낸 대참사이다.

이런 극악한 살인마가 책임을 모두 짊어지게 뒤집어쓰게 온전한 사과조차 하지 않고있으니 세상에 이런 뻔뻔스러움을 마귀처럼 보든 채물이다.

박근혜가 얼마전 남조선을 행각한 상선앞에서 《비참한 자가, 얼마전에 박근혜는 력적선침몰사고로 남조선명의를 통채로 초상점으로 화하였음에 불구하고 그런 분위기와는 도저히 맞지 않게 미국의 오바마를 서울에 끌어들이어 보기에 민망할 정도로 피뢰를 저지렀다고 한다. 실종자들을 구조하기 위해 밤낮으로 뛰어도 모자랄데에 이처럼 미국상선과 한가같이 회담을 한다. 이들을 찾아간다 하며 허송세월 할 시간이 있는가.

《세월》호 침몰사고는 현재가 아니라 그야말로 인재이다. 남이 죽든살든 전혀 상

관하지 않는 썩어빠진 남조선 판치. 반역정권에 악명떨치는 박근혜때가 빚어낸 대참사이다.

이런 극악한 살인마가 책임을 모두 짊어지게 뒤집어쓰게 온전한 사과조차 하지 않고있으니 세상에 이런 뻔뻔스러움을 마귀처럼 보든 채물이다.

박근혜가 얼마전 남조선을 행각한 상선앞에서 《비참한 자가, 얼마전에 박근혜는 력적선침몰사고로 남조선명의를 통채로 초상점으로 화하였음에 불구하고 그런 분위기와는 도저히 맞지 않게 미국의 오바마를 서울에 끌어들이어 보기에 민망할 정도로 피뢰를 저지렀다고 한다. 실종자들을 구조하기 위해 밤낮으로 뛰어도 모자랄데에 이처럼 미국상선과 한가같이 회담을 한다. 이들을 찾아간다 하며 허송세월 할 시간이 있는가.

《세월》호 침몰사고는 현재가 아니라 그야말로 인재이다. 남이 죽든살든 전혀 상

관하지 않는 썩어빠진 남조선 판치. 반역정권에 악명떨치는 박근혜때가 빚어낸 대참사이다.

이런 극악한 살인마가 책임을 모두 짊어지게 뒤집어쓰게 온전한 사과조차 하지 않고있으니 세상에 이런 뻔뻔스러움을 마귀처럼 보든 채물이다.

박근혜가 얼마전 남조선을 행각한 상선앞에서 《비참한 자가, 얼마전에 박근혜는 력적선침몰사고로 남조선명의를 통채로 초상점으로 화하였음에 불구하고 그런 분위기와는 도저히 맞지 않게 미국의 오바마를 서울에 끌어들이어 보기에 민망할 정도로 피뢰를 저지렀다고 한다. 실종자들을 구조하기 위해 밤낮으로 뛰어도 모자랄데에 이처럼 미국상선과 한가같이 회담을 한다. 이들을 찾아간다 하며 허송세월 할 시간이 있는가.

《세월》호 침몰사고는 현재가 아니라 그야말로 인재이다. 남이 죽든살든 전혀 상

관하지 않는 썩어빠진 남조선 판치. 반역정권에 악명떨치는 박근혜때가 빚어낸 대참사이다.

이런 극악한 살인마가 책임을 모두 짊어지게 뒤집어쓰게 온전한 사과조차 하지 않고있으니 세상에 이런 뻔뻔스러움을 마귀처럼 보든 채물이다.

박근혜가 얼마전 남조선을 행각한 상선앞에서 《비참한 자가, 얼마전에 박근혜는 력적선침몰사고로 남조선명의를 통채로 초상점으로 화하였음에 불구하고 그런 분위기와는 도저히 맞지 않게 미국의 오바마를 서울에 끌어들이어 보기에 민망할 정도로 피뢰를 저지렀다고 한다. 실종자들을 구조하기 위해 밤낮으로 뛰어도 모자랄데에 이처럼 미국상선과 한가같이 회담을 한다. 이들을 찾아간다 하며 허송세월 할 시간이 있는가.

《세월》호 침몰사고는 현재가 아니라 그야말로 인재이다. 남이 죽든살든 전혀 상

관하지 않는 썩어빠진 남조선 판치. 반역정권에 악명떨치는 박근혜때가 빚어낸 대참사이다.

이런 극악한 살인마가 책임을 모두 짊어지게 뒤집어쓰게 온전한 사과조차 하지 않고있으니 세상에 이런 뻔뻔스러움을 마귀처럼 보든 채물이다.

박근혜가 얼마전 남조선을 행각한 상선앞에서 《비참한 자가, 얼마전에 박근혜는 력적선침몰사고로 남조선명의를 통채로 초상점으로 화하였음에 불구하고 그런 분위기와는 도저히 맞지 않게 미국의 오바마를 서울에 끌어들이어 보기에 민망할 정도로 피뢰를 저지렀다고 한다. 실종자들을 구조하기 위해 밤낮으로 뛰어도 모자랄데에 이처럼 미국상선과 한가같이 회담을 한다. 이들을 찾아간다 하며 허송세월 할 시간이 있는가.

《세월》호 침몰사고는 현재가 아니라 그야말로 인재이다. 남이 죽든살든 전혀 상

관하지 않는 썩어빠진 남조선 판치. 반역정권에 악명떨치는 박근혜때가 빚어낸 대참사이다.

이런 극악한 살인마가 책임을 모두 짊어지게 뒤집어쓰게 온전한 사과조차 하지 않고있으니 세상에 이런 뻔뻔스러움을 마귀처럼 보든 채물이다.

관하지 않는 썩어빠진 남조선 판치. 반역정권에 악명떨치는 박근혜때가 빚어낸 대참사이다.

이런 극악한 살인마가 책임을 모두 짊어지게 뒤집어쓰게 온전한 사과조차 하지 않고있으니 세상에 이런 뻔뻔스러움을 마귀처럼 보든 채물이다.

박근혜가 얼마전 남조선을 행각한 상선앞에서 《비참한 자가, 얼마전에 박근혜는 력적선침몰사고로 남조선명의를 통채로 초상점으로 화하였음에 불구하고 그런 분위기와는 도저히 맞지 않게 미국의 오바마를 서울에 끌어들이어 보기에 민망할 정도로 피뢰를 저지렀다고 한다. 실종자들을 구조하기 위해 밤낮으로 뛰어도 모자랄데에 이처럼 미국상선과 한가같이 회담을 한다. 이들을 찾아간다 하며 허송세월 할 시간이 있는가.

《세월》호 침몰사고는 현재가 아니라 그야말로 인재이다. 남이 죽든살든 전혀 상

관하지 않는 썩어빠진 남조선 판치. 반역정권에 악명떨치는 박근혜때가 빚어낸 대참사이다.

이런 극악한 살인마가 책임을 모두 짊어지게 뒤집어쓰게 온전한 사과조차 하지 않고있으니 세상에 이런 뻔뻔스러움을 마귀처럼 보든 채물이다.

박근혜가 얼마전 남조선을 행각한 상선앞에서 《비참한 자가, 얼마전에 박근혜는 력적선침몰사고로 남조선명의를 통채로 초상점으로 화하였음에 불구하고 그런 분위기와는 도저히 맞지 않게 미국의 오바마를 서울에 끌어들이어 보기에 민망할 정도로 피뢰를 저지렀다고 한다. 실종자들을 구조하기 위해 밤낮으로 뛰어도 모자랄데에 이처럼 미국상선과 한가같이 회담을 한다. 이들을 찾아간다 하며 허송세월 할 시간이 있는가.

《세월》호 침몰사고는 현재가 아니라 그야말로 인재이다. 남이 죽든살든 전혀 상

관하지 않는 썩어빠진 남조선 판치. 반역정권에 악명떨치는 박근혜때가 빚어낸 대참사이다.

이런 극악한 살인마가 책임을 모두 짊어지게 뒤집어쓰게 온전한 사과조차 하지 않고있으니 세상에 이런 뻔뻔스러움을 마귀처럼 보든 채물이다.

박근혜가 얼마전 남조선을 행각한 상선앞에서 《비참한 자가, 얼마전에 박근혜는 력적선침몰사고로 남조선명의를 통채로 초상점으로 화하였음에 불구하고 그런 분위기와는 도저히 맞지 않게 미국의 오바마를 서울에 끌어들이어 보기에 민망할 정도로 피뢰를 저지렀다고 한다. 실종자들을 구조하기 위해 밤낮으로 뛰어도 모자랄데에 이처럼 미국상선과 한가같이 회담을 한다. 이들을 찾아간다 하며 허송세월 할 시간이 있는가.

《세월》호 침몰사고는 현재가 아니라 그야말로 인재이다. 남이 죽든살든 전혀 상

관하지 않는 썩어빠진 남조선 판치. 반역정권에 악명떨치는 박근혜때가 빚어낸 대참사이다.

이런 극악한 살인마가 책임을 모두 짊어지게 뒤집어쓰게 온전한 사과조차 하지 않고있으니 세상에 이런 뻔뻔스러움을 마귀처럼 보든 채물이다.

박근혜가 얼마전 남조선을 행각한 상선앞에서 《비참한 자가, 얼마전에 박근혜는 력적선침몰사고로 남조선명의를 통채로 초상점으로 화하였음에 불구하고 그런 분위기와는 도저히 맞지 않게 미국의 오바마를 서울에 끌어들이어 보기에 민망할 정도로 피뢰를 저지렀다고 한다. 실종자들을 구조하기 위해 밤낮으로 뛰어도 모자랄데에 이처럼 미국상선과 한가같이 회담을 한다. 이들을 찾아간다 하며 허송세월 할 시간이 있는가.

《세월》호 침몰사고는 현재가 아니라 그야말로 인재이다. 남이 죽든살든 전혀 상

관하지 않는 썩어빠진 남조선 판치. 반역정권에 악명떨치는 박근혜때가 빚어낸 대참사이다.

이런 극악한 살인마가 책임을 모두 짊어지게 뒤집어쓰게 온전한 사과조차 하지 않고있으니 세상에 이런 뻔뻔스러움을 마귀처럼 보든 채물이다.

관하지 않는 썩어빠진 남조선 판치. 반역정권에 악명떨치는 박근혜때가 빚어낸 대참사이다.

이런 극악한 살인마가 책임을 모두 짊어지게 뒤집어쓰게 온전한 사과조차 하지 않고있으니 세상에 이런 뻔뻔스러움을 마귀처럼 보든 채물이다.

박근혜가 얼마전 남조선을 행각한 상선앞에서 《비참한 자가, 얼마전에 박근혜는 력적선침몰사고로 남조선명의를 통채로 초상점으로 화하였음에 불구하고 그런 분위기와는 도저히 맞지 않게 미국의 오바마를 서울에 끌어들이어 보기에 민망할 정도로 피뢰를 저지렀다고 한다. 실종자들을 구조하기 위해 밤낮으로 뛰어도 모자랄데에 이처럼 미국상선과 한가같이 회담을 한다. 이들을 찾아간다 하며 허송세월 할 시간이 있는가.

《세월》호 침몰사고는 현재가 아니라 그야말로 인재이다. 남이 죽든살든 전혀 상

관하지 않는 썩어빠진 남조선 판치. 반역정권에 악명떨치는 박근혜때가 빚어낸 대참사이다.

이런 극악한 살인마가 책임을 모두 짊어지게 뒤집어쓰게 온전한 사과조차 하지 않고있으니 세상에 이런 뻔



